

“유통법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전환 짚어야”

광주경총,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 속 대응 전략 제시 접근성·디지털 전환 병행 강조…편의시설 등 지원도

당·정·청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며 온라인 유통업체 규제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전통 시장 활성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경총자치총회(회장 양진석)는 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통시장 보호를 규제 강화에만 의존하기보다 시장 자체의 경쟁력과 접근성, 디

지탈 전환을 함께 끌어올리는 종합적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경총은 현행 유통 규제 체계가 오프라인 대형 유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일 의무휴업 전환이나 지역별 선택제 도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제출되는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약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상생발전협의회 의 실질 심사와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인프라와 환경 개선은 여전히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주차장 확충과 노후 시설 정비, 화재·안전시설 설치·보강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체험·휴게공간,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문화행사를 지원해 전통시장을 ‘장보는 공간’을 넘어 ‘여가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다변화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통시장 통합 배송·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주문 시 당일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공동 브랜드 개발,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상인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부정 유통 관리 강화와 함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해 전통시장 결제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었다.

대형 유통과의 상생 모델 구축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공동 프 로모션과 지역 특산물 기획전, 쿠폰 교환 사용 등을 제도화하고, 고정적인 납품·공동구매 구조를 마련해 상생 효과를 높이는 제안이다. 출점 제한 역시 반경 기준 등 기계적 잣대에서 벗어나 지역협의기구를 통한 영향 평가와 상생 조건을 전제로 한 단력적 운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인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도 중요 과제로 언급됐다.

상인회 조직력과 경영 능력 강화를 위해 가격 전략과 상품 구성, 진열, 고객 서비

스, 온라인 판매 등을 아우르는 컨설팅과 교육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상인회·대형 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상생협의체를 법으로 상설화해 예산과 사업 선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유통법 개정 과정에서 전통시장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대형마트 규제 논의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패키지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생협의체와 영향평가 의무화, 전통시장 연계형 새벽배송, 공동 마케팅과 상생스토어 모델 확산, 상생기금과 보호장치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해 첫 ‘CEO 공감토크’를 열었다.

“AI는 경영 핵심 인프라”…인공지능 전환 ‘속도’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CEO토크서 경쟁력 좌우 강조 미션 지향형 전략 역설…현장중심 안전 정착 주문도

포스코그룹이 인공지능(AI)을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한다.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방식과 가치 창출 구조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최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해 첫 ‘CEO 공감토크’를 열고 “이제 AI는 선택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이며 AX로의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

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90분간 진행됐으며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투데이’를 통해 유튜브 생중계됐다.

AX는 단순히 AI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고객과 시장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장 회장은 “앞으로는 지능형 자율제조(Processing), 최고 수준의 업무 수행 역량

(Work), 새로운 가치 창출(Value)을 목표로 하는 ‘미션 지향형 AX(Mission Oriented AX)’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핵심 과제에 집중,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한 외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자동화 도입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임직원들의 AI에 대한 친밀도가 자율공정 도입의 핵심”이라며 “AI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직문화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전과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조직문화”라며 “직

원의 목소리가 실제 경영에 반영돼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 모두가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올해 설정한 경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안전 경영에 대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장 회장은 “무엇보다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한 해를 만들자”며 현장 중심의 안전 의식 정착을 주문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CEO 공감토크를 시작으로 2·3분기에는 광양과 포항에서 추가 행사를 열어 성과 창출 중심의 소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내달 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기업당 최대 3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일반·고도와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지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중장기적인 탄소 대응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트랙은 일반과 고도로 구분되며 두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율은 일반 트랙 50%, 고도화 트랙 7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 산업단지 비임주 기업에는 가점이 부

여돼 선정 시 우대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비임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대 혜택을 신설해 지원 폭을 넓혔다.

유관기관 사업 연계와 원가계산 비용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설비는 에너지 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 공정 최적화형(AI 기반 제어 시스템 등), 배출전단형(모니터링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폐기물 열분해시설 등) 등 4개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설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기업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로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ESG통합플랫폼에서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달메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

올림픽 도시 밀라노, K-푸드 무대 되다

aT, 현지 셰프·바텐더 협업…유럽 소비자 점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달메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전 세계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의 매력을 알리는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무대를 활용해 유럽 소비자들에게 K-푸드를 널리 알리고, 현지 미식 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유럽 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는 지난 1월 1일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밀라노의 상징적인 시내 대중교통인 트램에 걸쳐, 비빔밥 등 대표 K-푸드 12종을 일러스트로 디자인한 래핑 광고를 실었다. 트램에는 행사 정보와 온라인 구매정보를 포함한 QR코드를 부착해 밀라노 시내 곳곳을 현재 누비도록 했다.

또 소비자 설문조사를 병행해 홍보 효과와 극대화할 예정이다.

올림픽 기간인 2월 6일부터 22일까지는 밀라노 중앙역 내 유명 푸드마켓인 ‘메르카토 첼트랄레’에서 K-푸드 팝업 바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 셰프 프랑크 부지즈넬리와 한국인 구선영 셰프가 협업해 김치 굴 요리, 된장 크림 참치요리, 김치 참치 타르타르 등 한국 발효식품을 재해석한 퓨전 메뉴를 선보인다.

유명 바텐더 디에고 페라리가 소주와 복분자주를 베이스로 개발한 ‘코리안 마티니’ 등 창의적인 칵테일을 소개한다. 여기에 이탈리아의 초저녁 식전주 문화인 ‘아페리티보’에 착안한 K-푸드 체험 공간을 마련해 이강주, 송승주 등 다양한 한국 전통주를 현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aT는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소비자가 K-푸드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인연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20일까지 입주기업 모집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문화산업 및 ICT·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2026년 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한다.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는 지역 IT·SW 및 문화산업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남도 기업지원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전남 목포시 석현로 46에 위치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내 총 4개실(벤처동 3개실, 문화동 1개실)이다.

최종 선정된 입주기업은 독립된 사무공간과 더불어 센터 내 다양한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사업화,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기초 인프라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0일까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농산업도 ‘스마트공장’ 시대 열린다

한국농어촌공사, 4월 9일까지 중소·중견기업 모집 1차 모집서 농기계 등 10곳 선정…최대 2억원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9일부터 두 달간 농기자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 국내 기업 제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수출 활성화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 비료, 농약, 사

료, 동물용 의약품, 종자, 시설자재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 분야 제조기업이다. 1차 모집을 통해 약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 공장 설루션 도입과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 비용을 지원받는다. 총 2억 5000만원 내에서 2회까지 지원하며 회당 최대 2억원(지원 비율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제조 환경 개선을 넘어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

한 품목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사업 참여 기업에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인허가 취득 및 마케팅스트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우리 농산업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이를 발판 삼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